

사설

최근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이 '속초시 설악권 4개 시·군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 건의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 문제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던 고성지역 주민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성군변영회는 최근 회장단 긴급 모임을 갖고 속초시의 일방적인 통합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반대 플래카드 설치와 주민궐기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군의회에서는 오는 25일 제218회 정례회 개회식 때 홍봉선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95년 도농통합으로 큰 진통을 겪었던 양양지역에서는 이미 범군민통합결사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된데 이어, 오는 25일 양양군문화관

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지역도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속초지역에서 시작된 시군통합 건의로 인해 조용하던 설악권 4개 시군의 주민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든 논란

지역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나머지 3개 군 지역이 어쩔 수 없이 통합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정치인은 다른이 아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지역 출신이면서 서울에

비야흐로 설악권에 또다시 통합논란이라는 거대한 광풍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먹고 살기도 바쁜 주민들은 마치 천재지변을 당하듯 통합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연재해와 달리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3개 시군을 선거구로 하는 국회의원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략 6명의 입후보 예정자들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소신도 없는 사람이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민들을 속이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시군 통합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은

속에 휘말리게 됐다. 특히 지난 1995년 속초-양양 통합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잦은 궐기대회 등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등의 피해가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

정치란 모름지기 민심을 헤아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속초

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설악권의 미래를 위해 통합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 정치라고 할 때, 지금 상황에서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게 보다 가치있다.

포켓몬인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다. 세상 삶은 모를 일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일이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다. 정말 정의가 악의를 물리친 일이 의로운 일일까?

정의의 기준점을 무엇에 두는지 알고 싶다. 그 깊은 곳에는 혐오 불만 증오 갈등 악의 공포가 숨어 있음이 틀림없다. 불만의 요인이 무엇일까. 이념적 역사적 소산 물이 아니던가? 그 옛날 선조들의 종교적 물질적 갈등에서부터 발생한 전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구교도간 싸움, 학살, 암살 등. 십자군(11세기 말 1096년)은 13세기말 1291년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약 700만명을 동원한 원정으로 아세아 구라파에 영향을 끼쳤다. 200만명 희생의 목적은 팔레스티나를 쟁취하기 위하여 회교도와 기독교도간 영토분쟁 및 경제적 이익 또는 이민족간 분쟁으로서 동방의 비잔틴 문화와 회교문화가 유럽인의 견문에 영향을 주어 근세문명이 발달을 하게 하였다. 즉 욕심은 갈등으로 갈등은 싸움으로 싸움은 화를 불러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고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 이 악몽을 잃고 잊고 살던 중 미국소재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3226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선수촌 습격 살인사건, 탄자니아 미군기지 자살폭파 200명 사망 사건, 케냐 미군기지 자살폭파 사건, 리비아 시리아 납수단 폭탄 사건으로 인한 희생 등도 있다.

악이든 선이든 정의이든 죽을 이유도 그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논설위원



온 국민이 반테러 파수꾼 되자

무엇도 없다는 것인데, 이 처참한 일에는 직접 당한 일은 없으나 컴퓨터 앞에 앉아 슬픔에 잠긴다.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권세와 돈과 명예 등의 욕이던가, 사상의 부름이었던가?

인류여 해답하시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러훈련소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진 267개의 테러 집단이 인류를 위협하며 건재 호언장담하던 오사마빈라덴은 이제 먼지도 그 티끌도 없이 이슬로 살아졌다는 것.

인생은 무상 하도다, 테러집단 독재정치에 응징 할 것이 아니라 응징보다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해결의 길은 그 테러집단과 테러를 비호하는 당사국 및 단체 그리고 기타 관계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책임임을 알아야 하겠다. 한편으로 채찍과 도움을 다른 편으로 대응과 화해를 최선책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 대비책으로 첫째, 테러응징과 방지 협정체결 둘째, 범인인도 기타협정체결 셋

째, 庇護(비호)국가 축출 등 UN헌장에 따라 평화를 위한 평온한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안전보장 이사회와 비상임국 회원국 결정에 따라야한다는 것, 이에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이슬람 문화권과 사랑은 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권은 같은 정신이라고 볼 때 지구촌에선 테러는 영원히 결별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모든 지구인은 화합하여 반목에서 화목화친을 통해서 인류평화를 이룩함에 있다. 이 최선의 노력은 우리들의 사명이다. 즉 네가 살아야 내가 살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시급한 생의 철학의 과제라 하겠다.

인류평화와 화친을 위하여 2014년 우리 강원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산수가 수려한 이 고장엔 올림픽 산소길, 실레마을 6.5km(1시간40분소요) 김유정 이야 기길, 대관령 옛길, 정선 가리왕산길 등의 길이 있다. 우리 모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 총력으로 만전을

기하자.

우선 인간간에 화친하여야 한다는 것. 둘째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국가간 테러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법은 화친화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초국가적 인류의 이름으로 대책수립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 넷째 UN기구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테러 관련 국제적 범죄는 속인주의 내지 절충주의에 따라 재판관에 의하여 사법처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다섯째 테러를 옹호 비호하는 국가는 유엔의 제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제도가 재검토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NATO조약 제5조 참조)

따라서 너의 안정은 나의 평안이다. 이제 2014년 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의심이 없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까지 국민파수꾼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보편화 일반화 되어야한다. 우리의 안녕을 위하여 나를 지키고 너를 지켜야 살아남는다.

올림픽대회 성공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린다. 전 국민은 정신을 재무장하고 평창 올림픽 파수꾼이 되어 테러를 예방하고, 대비해서 동계올림픽을 꽃피우자. 화기에 애한 사회분위기와 쾌적한 환경 유쾌한 교통질서 드높은 도덕정신 최선의 서비스를 발휘하여 우리 모두 축하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여야겠다. 백 마디 말보다 하나하나 살피서 실천 하는 것이다. 5천만이 하나 되어 우리자랑 만천하에 전하자. 우리 하나 되어 테러예방, 너의 안정 나의 평안, 국민자존과 긍지를 드높이자.

◇편집국에서

동광중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서울 등 대도시 학생들도 입학하기 어렵다는 특수목적고와 명문 사립고에 합격해 고성지역의 자긍심을 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소식이 유난히 관심을 끄는 것은 고성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 '교육여건

이 좋지 않다'는 것이 자주 거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고성지역이 결코 교육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민들이 성적은 여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